

KTV

2014년 1월 20일

#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1. 14. 11:00	시청률	0.027

### 【총 평】

희망의 새시대는 <국민리포트>, <여기는 세종> 등으로 국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른 뉴스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국민리포트>, <톡톡e세상>, <맛있는 날씨> 등의 코너 등으로 정보와 재미까지 추구해 시청자들이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느낌을 주고 있음.

### 【구성 및 내용】

"일본 지도자, 고노·무라야마 담화 승계해야"를 비롯해 이 시각 국제 뉴스 '동해 병기 법안 미 버지니아 주의회 첫 관문 통과', 국민리포트 '조계종, 석보체 개발... 무료 보급' 등이 보도되었음.

<집중인터뷰>는 문화관광체육부 한민호과장이 출연해 10년 만에 통과된 지역 문화진흥법의 지정 배경과 과정,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음.

<여기는 세종>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공정인 '이종선 사무관'을 인터뷰했으며, <맛있는 날씨>는 겨울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황태 감자탕을 소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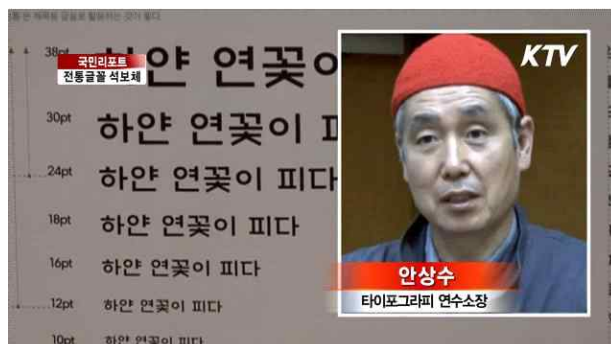
### 【음향개선점】

<이시각 주요뉴스> 코너의 장슬기 기자의 목소리가 BGM에 묻히는 듯한 느낌이므로 BGM을 조절했으면 좋을 듯함.

### 【자막 개선점】

■ 리포터와 기자들의 네임자막을 일관성 있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음.

■ '조계종, 석보체 개발...무료 보급'에서 네임수퍼 오류



타이포그라피 연수소장 안상수  
→ 연구소장

프로그램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4. 1. 15. 14:30	시청률	0.044

### 【총 평】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에 걸맞는 소재 선정이 매우 좋았음.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잘 조명했으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과 단체를 인터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잘 표현했음. 진행자의 미숙한 진행과 일부 그래프 자막이 설명과 멘트 없이 제시되어 '옥의 티'였음.

### 【구성 및 내용】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수호천사가 되다>, <살리밋의 '기적' 대한민국서 희망을 선물받다>, <잇따른 '치매 비국' 조기진단과 치료로 이길 수 있다>등 3개의 아이টে으로 구성하였음.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수호천사가 되다>는 실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사례를 찾아 동선을 따라다니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변 시선들도 함께 살펴보고 보다 가깝게 다가왔음. 그러나 특정기업(삼성)의 로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간접광고로 비쳐질 수 있었음. **<살리밋의 '기적' 대한민국서 희망을 선물받다>의 경우 기획의도와 잘 부합하는 소재였으나, 살라밋을 수술해 준 병원과 의사가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다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교회(서울교회)가 더 부각되었다고 생각함.**

<잇따른 '치매 비국' 조기진단과 치료로 이길 수 있다>의 경우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잘 조명했음.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도 치매가 개인의 책임과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질 부분이고 이를 위해 사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음. 그러나, **연예인이 공인이라 해도 가족사를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1. 15. 17:00	시청률	0.027

### 【총 평】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스위스 국민방문에 관한 주요뉴스 리포트 및 현장 중계 등 신속하고 순발력 있는 대처가 돋보였음. '비정상의 정상화' 기획기사,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등이 적절히 어우러졌음. 한국영화 100선을 소개한 코너 구성으로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를 전해줘 분위기 전환이 되었으며, 오래 전 희귀 영화를 잠시나마 볼 수 있어서 좋았음.

## 【구성 및 내용】

박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원전 세일즈', 박 대통령, 인도 국민방문, 새해 첫 '세일즈 외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스위스 국민방문과 관련된 다각적인 뉴스집중과 서울공항 현장연결 등 유기적 연계가 돋보였음.

<기본이 바로선 국가 비정상의 정상화> 첫 시간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짚어 보았음. 앞서 뉴스로 전했던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횡령·부당지출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집중력 높은 기획이었음.

창조경제의 뿌리-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전문가인 '이강근 히브리대 교수'가 출연해 창조경제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잘 분석해 주었음. 이스라엘 창조경제-5가지 장점 및 '후츠파 정신' 7가지 명제 등,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실체적 접근이 좋았음.

## 【영상 개선점】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영화 100선'..최고의 한국영화는?
  - '한국영화 100선' 중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 7편이라는 이야기 이후에 이만희 감독, 봉준호 감독 등을 언급했는데 자료화면은 줄곧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만 등장해 다양한 자료화면의 제시가 아쉬웠음.

- '비정상의 정상화'...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옷차림이 모두 한여름 옷이어서 부적절했음.

계절감각 등을 고려한 영상편집과 자료화면이 필요함.

프로그램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1. 16. 14:30	시청률	0.008

## 【총 평】

새해 들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 또 문화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법규 안에서 사업을 집행할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의 설명과 수혜 국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구성이었음. 현장다큐인데 국민의 현장보다는 법 해설이 주류를 이뤄 시청자의 기대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



## 【구성 및 내용】

첫번째 코너 생활 속 문화확산의 경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조국래 할아버지를 팔로잉 하면서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노년 생활을 그렸는데 정작 할아버지가 참가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없었음.

두번째 코너 지역문화 활성화는 관광자원이 된 정선의 폐광 시설과 부천시의 동호회 지원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두 소재 간의 격차가 커서 내용을 이해 하는데 혼란을 주었음. 자연스러운 방송 흐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두 소재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세번째 코너 경제 활력 견인에서는 아이디어 융합 산업 개발 현장과, 콘텐츠 코리아 랩, 내 손안의 덕수궁 앱 등을 다뤘는데, 아이디어 융합 산업 개발 강의는 과연 어디서 하는 건지? 개발된 아이디어들이 제품화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마추어들의 교육 현장인건지? 수많은 의문을 남기는데 그친 아쉬움이 있었음.

## 【제작 개선점】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야기 전개 흐름상 interviewee가 어느 정도 반복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난 회 인터뷰를 다시 재방송하는 건 너무 무성의하다고 느껴짐.

1월 8일 방송분(제34회)



1월 16일 방송분(제35회)



프로그램		인문학열전	
방송일자	2014. 1. 16. 16:05	시청률	0.032

### 【총 평】

전반적으로 유려한 구성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음.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대담구성, 시 낭독에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활력과 흥미를 주었음. 서재 분위기의 스튜디오가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고 소품이나 가구들로 활력을 주기는 했으나 다소 어둡고 딱딱하다는 느낌도 가지게 됨.

### 【구성 및 내용】

<우리시대 인문학> <길위의 인문학> <명사의 인문학 서재> 등 3꼭지로 구성했음. 특히, 시인과 성우 등이 시를 낭송하며 후 토크를 이어 나간게 정적으로만 흘러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었음.

우리시대 인문학에서는 문정희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세계관에서부터 내면적인 잠재 요소까지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주는 진행 방식이 좋았음. 문정희 시인의 스승인 미당 서정주 생가를 방문해 그의 자취를 알아보는 길 위의 인문학은 물론 명사의 인문학 서재의 차동엽 신부까지 생명과 인간 내면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 의식이 잘 들어나 있었음.

프로그램		통일 콘서트 공감	
방송일자	2014. 1. 16. 18:15	시청률	0.029

### 【총 평】

통일콘서트 공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잘 설명했음. 북한전략 정보서비스 센터 이윤걸 소장과, 고려대 북한학과 강승규 교수, 탈북 가수 한옥정씨 등 3명이 출연해 북한의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조명했음, 북한이 외화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장마당을 시장경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북한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에 충분했음.

### 【구성 및 내용】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집어보는 시간으로 외화벌이에서 장마당까지 북한식 시장경제를 알아보았음. 최근 김정은의 행보와 김여정의 등장, 중국 등의 외화벌이 취업문제, 북한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고려 링크, 장마당의 규모와 신흥부자 세력, 주민들의 정치적 입장, 장마당으로부터 북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다루어 실질적인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음.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4. 1. 16. 20:00	시청률	0.023

###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는 '바다로 간 사나이 청산도 청년 귀어인' 곽동훈씨와 김성명씨가 청산도에서 귀어인으로 살아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음. 전복을 키우며 느끼는 애환을 담고 청년이지만 뱃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구성상 통일성과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임.

'귀농'에서 '귀어'로 아이템을 확장시킨 점도 좋았을 뿐 아니라, '청산도'라는 슬로시티 섬을 배경으로 삼은 장소 선정도 시청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특히, 귀농이 단순히 푸른 꿈만이 아닌 많은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고, 자칫 쉬운 일처럼 미화되기 쉬운 어촌의 힘든 일을 상세하게 보여주어 사실관계를 잘 표현하였음.

### 【구성 및 내용】

슬로시티의 섬-'청산도'를 단순히 유채꽃이 만발한 낭만적인 관광지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한겨울에도 젊은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본 기획이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하였음. 단, '귀어 귀촌'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정책을 다룬 점은 좋으나, 프로그램 중간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엔딩부분에서 정보성 Tip으로 다루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음. 또한, 서편제로 유명한 청산도에 대한 소개도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졌음.

'귀농'이나 '귀어'가 결코 낭만적 현실도피가 아니라는 점을 바다로 간 사나이, 청산도 귀어인 '김성명'편에서 잘 보여주었음.

프로그램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1. 17. 16:05	시청률	0.018

### 【총 평】

<영원한 우리 정신, 우리 문화재> 편에서는 조유전 경기문화재 연구원장이 출연해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의 현안과 역사, 문화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음.

### 【구성 및 내용】

한국판 인디애나 존스로 불리는 조유전 연구원장이 문화재 정책과 문화재 발굴 당시의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었는데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 아쉬웠음.

문화재나 고고학에 대한 정의는 딱딱하고 작위적인 느낌을 주었음. 프로그램의 특성상 문화재 발굴과 복원 등에 얽힌 일화들을 흥미롭게 풀어내지 못하고 원론적이고 교과서 적인 설명 흐름으로 다소 지루했음. 진행자는 '문화재'에 대한 큰 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체계적인 느낌을 주지는 못했음.

프로그램		여기는 국정기록실	
방송일자	2014. 1. 17. 18:05	시청률	0.028

#### 【총 평】

'국정기록실'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굵직한 국정이슈들을 정리해 눈길을 끌었음. 첫 시간으로 신선한 부분이 있었지만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된 내용들을 요약하는 흐름은 집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느낌이었음.

#### 【구성 및 내용】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민관활동 창조경제 추진단 출범, 201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 공공도서관 확충, 체육단체 비위 적발 및 정상화 방안발표 등의 내용을 전했다.

프로그램		국민 리포트 '신 대한뉴스'	
송일자	2014. 1. 17. 20:00	시청률	0.056

#### 【총 평】

각 코너의 소재선정이나 내용 등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되나, 타이틀인 국민 리포트 '新 대한뉴스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 제목 따로 내용 따로라는 느낌을 주고 있음.

#### 【구성 및 내용】

<마을의 보물> <행복현장> <희망인물> 및 <문화의 발견>의 4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코너 하나하나는 나름 신선하고 완성도가 높지만 하나의 타이틀 아래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느낌을 주었음. 특히, 4개의 코너들이 국민 리포트 '신 대한뉴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움.